2023 년 11 월 5 일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김영란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갈 5: 16-23) .....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 "내가 매일 기쁘게"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피: hkb.church

지난 주 설교 요약

“참된 헌신을 드리라” (요한복음 12:1-7)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과 감격함과 자원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병을 치유 받은 시몬과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잡아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린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그들은 그 불이익과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일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순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충동적인 행동이, 정신이 나가서 한 행동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했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분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중의 한 사람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헌신이나 희생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말로만 하는 섬김인지, 사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섬김인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섬김인지, 자신의 체면을 위한 헌신인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편함을 내려놓고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헌신을 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참된 헌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헌신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힘에 넘치게 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도에 넘치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있을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어떻게 죄인 된 우리,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 헌신이 도를 지나치는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헌신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성찬식 –**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단기선교 간증–** 오늘 예배에 조지아 단기 선교 (10.12-20) 간증을 산호세 주님의 한빛 교회 하필상 집사님께서 예배 중에 나누어 주십니다.
4. **주일 중보기도 –** 주일오전 10 시부터 예배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모임이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5. **부장 & 운영 위원 모임 –** 예배 후에 부장 & 운영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6. **헌장개정 위원 모임** – 월요일 저녁 7:30 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 **중보기도 –** 2024 인선과 예산, 헌장 개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05	11/12	11/19	11/26
대표기도	김영란	손다니엘	유경주	조정욱
헌화성도	성미숙	정병철	심연순/ Susan Choi	정명희
봉사당번	믿음구역	소망구역	소망구역	각전도회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감사예배	11 월 19 일(주일)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2,800.00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정병철	510-415-4156	정주환(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Malaysia)
소망구역	유경주	510-634-9374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셩경공부-12 주	12 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졌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주어야 자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지치고 낙심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보면 기도의 시간이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일어날 힘이 솟고 상황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중 새벽 기도와 토요 새벽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알지 못하는 힘이 솟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눈물과 간구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함 속에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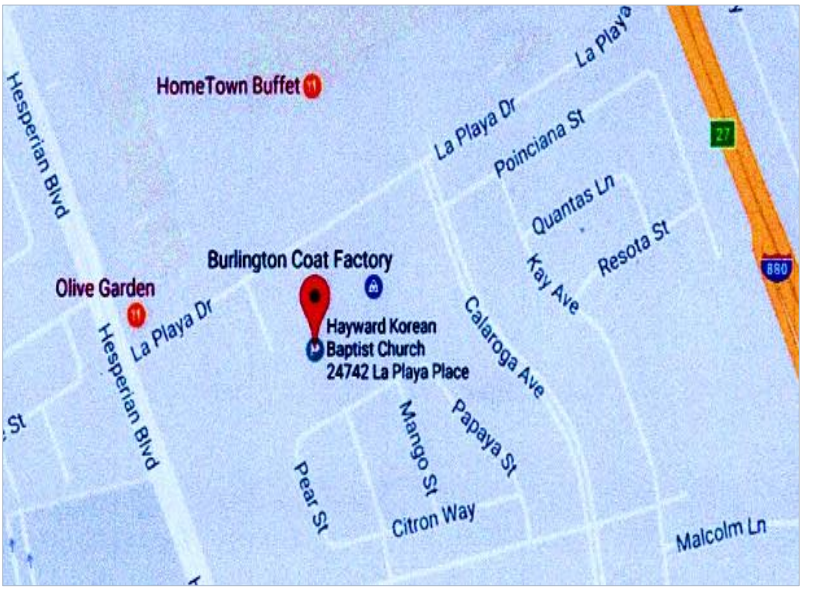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깊이 영적으로 보면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기도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저 앉아 있는 나의 신앙이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영적 교만함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섬김과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 배우자, 부모님, 친구와 동료, 친척.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벽기도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4:2 절에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주중에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토요새벽기도에 꼭 참여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함께 교회와 예배와, 선교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몸이 피곤해서 라면 나오십시오.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적인 피곤은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서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누군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Sunday Main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본당 *Main Sactuary*
어린이예배 *Sunday Children's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유치부실 *Children's Room*
영어예배 *Sunday English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영어부예배실 *English Service Room*
주일성경공부 *Sunday School*	주일오후 12 시 *12:00 P.M.*	유년부실 *Group Class R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Meeting*	매일 화-토 6 시 *DailyT-Sat 6 a.m.*	본당 *Main Sactuary*
구역모임 *Local House Meeting*	매 월 *Monthly*	구역별 각가정 *Local church member's home*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Children's Ministry: Joy Song*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